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14호

종려주일

2020년 4월 5일

예배시간 09:30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 노진숙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주의 보좌로 나아갑시다(J. S. Bach)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140장(왕 되신 우리 주께)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사53:4-5),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회 중: 아멘.

***송영**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회 중: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목 사: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 중: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목 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시 118:1-2, 19-29).

경배찬송 455장(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대하 7:14)는 주님의 약속,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대하 6:27).

응답송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경동찬송 11장) **다함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여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시 86:5)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음을(민 14:18)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거룩하신 하나님**(경동찬송 32장)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영원하신 주여 자비 베푸옵소서

말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50:4-9** **박연길 목사**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기억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웃처럼 헤어지고, 쏘에게 먹힐 것이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1절 **다함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서신의 말씀 **빌립보서 2:5-11** **박선교 목사**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

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2절 **다함께**
생수 되는 주의 말씀 먹고 살아라 우리 삶에 기쁜 샘이 솟아나리라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26:14-25 **목사**
그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닢을 씌어 주었다. 그 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 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변함없는 주의 말씀(경동찬송 25장) 3절 **다함께**
등불 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둔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친교와 소식

기도

응답송

특송

설교

기도

..... **목사**
..... **배영호 목사**
..... **오르가니스트**
거룩한 성(S. Adams) **최승태 집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채수일 목사**
..... **설교자**

성만찬

찬송

성만찬 초대

228장(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2, 4절 **다함께**
..... **집례자**

성만찬 기도	다함께
집례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회 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집례자: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회 중: 주님께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바쳐 드립니다.	
집례자: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 중: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집례자: 주님은 땅에서 떡을 내시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과 낙심, 절망 가운데서 새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셔서 어둠은 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 중: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데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응답송	거룩 거룩 거룩(경동찬송 4장) 1절 다함께
	거룩 거룩 거룩 온 맘 다해 주 찬양 내 맘을 아시는 주님 거룩한 주님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23-26 집례자
성령임재의 기원	 집례자
성만찬 나눔	 다함께
	(세례 받은 성도들은 제단 앞으로 나와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감사의 기도	 다함께
	자비의 하나님, 주님께서 죄의 깊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품에 안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참회하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냄	
봉헌과 찬송	89장(샤론의 꽃 예수)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635장(하늘에 계신) 다함께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후주	호산나! 주를 찬송하리로다(M. Teschner)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교우소식

- ▶장례: 故 이정세 집사(향년 89세 / 김한근 권사 남편, 이연호 집사, 이나경 교우 부친, 3월 23일(월) 소천, 3월 25일(수) 발인)
- ▶출산: 이상엽 교우 · 서은숙 교우(딸), 3월 21일(토))

2. '부활절감사헌금' 안내

-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부활절감사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부활'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활 / 헌금 예산: 42,000,000원)

3. '코로나19 극복 긴급구호헌금' 안내

-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코로나19 극복 긴급구호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구호'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호)

4.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목적헌금) 안내

-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반드시 헌금자를 기명하여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5. 주일예배 영상 안내

-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특별봉헌 3월 22일

감사헌금: 강원내(감사), 김수평 · 임문규(감사), 김영걸(감사), 김정란(어머니 장례), 박다정(십일조), 박세훈(범사), 박수길 · 김진희(감사), 박연길 · 박수미(십일조), 박재운(생일, 딸 특주 감사), 배영호 · 박영조(십일조, 어려움 함께하십), 정한움(십일조), 채수원(감사), 채수일 · 김정숙(감사)

지정헌금

'코로나19 극복 긴급구호헌금': 강신재 · 함천진, 강원내, 곽진영, 구갑우 · 이연혜, 김강중 · 이온표, 김정규 · 김정자, 김남강 · 인보영, 김병태 · 김수미, 김선아(지), 김성식 · 김원희, 김수평 · 임문규, 김영걸 · 심영선, 김종화 · 황영자, 박경희, 박동우 · 이현미, 박민수, 박성준 · 김성, 박수길, 박연길 · 박수미, 박재준 · 박소영, 배영호 · 박영조, 손향옥, 양승인 · 정영주, 양승진, 오성혜, 오인용 · 남윤희, 원홍재, 윤광배 · 박선영, 윤 근, 이승자, 이영순, 이현숙(강), 장용준, 장철수, 전남일 · 박귀숙, 정광서, 정대제 · 김숙영, 정지석, 조규곤 · 이공진, 조현균 · 손미란, 최방지, 최일선 · 이금주, 한현옥, 홍희일 · 이경화, 황연성 · 안미경

미자립후원헌금: 윤광배 · 박선영

다음 주일 말씀

4월 12일(부활주일)

성 경: 행 전(사도행전 10:34-36)
서신서(골로새서 3:1-4)
복음서(요한복음서 20:1-10)

설 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채수일 목사